

# 결핵학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카톨릭의대 내과



과장 변 해 원  
년도별 학술대회 논문수

## 결핵학회의 연혁

결핵학회는 결핵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박멸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대한 결핵 협회의 한 기구인 학술부로서 1953년 11월 6일 발족하였다.

그 후 1961년 10월 15일 대한 의학 협회의 정책에 따라 대한 의학 협회의 한 분과학회로서 정식으로 대한 결핵 학회로 발전하였다.

1966년 우리나라 결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일 질환으로서의 유일한 결핵 전문의 제도를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결핵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창립 이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였다.

### 1) 학술 대회

학회는 학술적인 연구와 상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토론 및 상호 의견 교환으로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학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제1회 학술대회는 1953년 11월에 개최하였으며 1955년 이후에는 년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977년 현재까지 44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총 논문 발표 수는 696건으로서 1953~1959년 218건(년평균 31.1), 1960~1969년 343건(34.3) 1970~1977년 5월까지 135건(17)이었다.

논문 내용을 보면 Table I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내과적 치료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으며 이것은 폐결핵 치료는 여러가지 항결핵제가 발견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연도	1953~ 1959	1960~ 1969	1970~ 1977
논문내용			
내과적치료	9.1	8.1	5.3
외과적치료	4.1	4.1	0.5
예방의학적	2.7	4.2	1.2
흉부X-선	2.3	0.7	0.3
비결핵성 호흡기질환	4.7	6.0	5.3
호흡생리	1.0	3.5	0.4
사회학적	0.1	1.7	1.8
결핵균	7.3	6.0	2.1
총 연 평균	31.1	34.3	17
총 건 수	218	343	135
전 건 수	696		

(Table I)

하고 있다. 1959년 까지는 주로 SM, INH, PAS를 사용하고 치료 실패시에 소위 2차약이라는 Cycloserine, Pyrazinamide Kanamycine 등을 사용하였었다. SM, INH, PAS를 주로 사용되 이 시기에는 이 세가지 약제중 2가지를 병용하여 그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주 치료법이 었으나 사실상 2가지 병합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소위 2차약을 사용하여 치료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또는 외과적 치료로서 결핵 완치를 기하였었다. 그러므로 내과적 치료법에 관한 논문이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외과 치료에 관한 것이 많았었다.

1960년도에서는 Ethambutol, T1321, Rifampicin, Capreomycine 등의 우수한 항결핵제가

발견 사용되므로 내과적 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 많았다.

1970년도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우수한 항결핵제를 어떤 병합요법을 사용하면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한가를 연구하는데 내과적 치료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도 내과적 치료에 논문수가 수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수한 항결핵제의 적당한 사용으로 폐결핵이 완치된다는 것이 증명되어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외과적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으로 인정되었으므로 1970년대에는 외과적 치료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적었다. 결핵 박멸에는 결핵균에 관한 연구, 즉 약의 살균 효과 및 그에 관련되는 저항력이 결핵치료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균에 관한 논문이 1960년대까지 상당히 많았다. 한편 결핵박멸을 위하여서는 치료 이외의 사회 의학적인 문제 및 결핵예방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으므로 사회 의학적인 논문과 결핵예방에 관한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다. 앞으로는 결핵박멸 사업을 위하여 결핵단기 치료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사회 의학적인 문제, 결핵예방에 관한 문제를 더 연구하여야 하고 일반 대중의 계몽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에 학회에서 주장하던 모든 우수한 항결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현 우리나라 결핵환자를 약 1/3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Pannel discussion 및 Semina

이것은 결핵 전문의 이외의 의사 및 결핵 박멸 사업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교육, 계몽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19회에 이르렀다.

## 3) 국제적 교류

외국의 결핵사업 또는 치료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8회에 이르러 세계의 권위인 외국 유명학

자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반면 동남아 및 서부에서 개최하는 결핵 및 호흡기질환학회에 연 1~2명, 근년에는 6~10명을 파견 참석케하여 총20회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있었던 국제학회로서는 국제 항결핵 연맹회의, WHO 결핵 사업회의 및 국제 흉부질환 학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학술적 발전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가능한 많은 국제 학회를 국내로 유치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학술지 발간

모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과 Pannel Discussion 및 Semina의 내용, 외국인 특별 강연내용을 학술지에 수록 배부하여 총 87회에 이르렀다.

## 5) 결핵 연구 보조비

결핵 연구에 종사하는 학도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하여 소액이나마 연구보조비를 1969년 이후 매년 1,500,000~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미리 연구하려는 연체 계획, 목적 및 예산을 제출케 하여,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하여 각자의 예산에 일부를 지출하고 반드시 그 연구결과를 학회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연구보조비를 지불받아 발표된 논문수는 현재까지 51건에 이르렀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비가 결핵에 관한 연구는 물론 이의 흉부질환 특히 폐암, 폐기종 및 기관지 천식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도록 해야 하겠다.

## 6) 결핵 전문의 배출

결핵 전문의 제도는 1967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32명을 배출하였다. (Table II)

그 내용을 보면 1970년 이후는 평균 5~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에 대하여 취미 혹은 관심을 갖는 의사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도 결핵환자가 많은 우리로서는 결핵관리에

전 문 의

합 격 년 도	합 격 자 수
1 9 6 7	74
1 9 6 8	15
1 9 7 0	6
1 9 7 1	5
1 9 7 2	8
1 9 7 3	4
1 9 7 4	7
1 9 7 5	7
1 9 7 6	1
1 9 7 7	5
총 계	132

(Table II)

큰 장애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의사나 환자 모두가 결핵은 항결핵제만 사용하면 간단히 치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한편 결핵을 전공하여서는 의사로서의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결핵박멸 사업에 문제를 던져 주는 것으로 정부 및 학회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기타 사업

가) 결핵학회는 결핵박멸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학술적 지식을 토대로 정부에 결핵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치료 예방, 교육 및 요원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나) 1965년도, 1970년도, 1975년도 우리나라 결핵 실태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계획, 분석 및 총 평가를 했다.

다) 대중 계몽을 위하여 결핵협회에서 발간하는 「보건세계」에 적극 투고했다.

라) 수시로 학회회원은 현 결핵사업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일선 보건소에 출장하여 그 사업 실태를 파악, 보고하여 이후의 개선의 자로 삼게 하였다.

앞으로는 소위 고가인 2차약을 각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학회원들이 더 자주 일선에 방문하여 결핵치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科學技術者 倫理要綱

現代的 國家發展에 미치는 科學技術의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우리들의 行動의 指針이 된 倫理要綱을 아래와 같이 制定하고 힘써 이를 지킴으로써 祖國의 近代化에 이바지 할 것을 깊이 銘心 한다.

1.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모든 일을 最大限으로 誠實하고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2.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恒常 專門家로서의 權威를 維持하도록 努力하며 自己가 所屬하는 職場 또는 團體의 名譽를 昂揚하여야 한다.
3.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法律과 公共福利에 反하는 어떠한 職分에도 從事하여서는 안되며, 의아스러운 企業體에 自己의 名稱을 빌려 주는 것은 拒絕하여야 한다.
4.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依賴人이나 雇傭主로부터 取得 또는 그로 因해 얻어진 科學資料나 情報에 對하여서는 秘密을 지켜야 한다. 또는 他人의 資料情報을 引用할 때는 그 出處를 밝혀야 된다.
5.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誇張 및 無根한 發言과 非權威的 또는 眩惑的 宣傳을 삼가야하며 또 이를 制止하여야 한다. 特히 他人의 利害에 關係되는 評價報告 및 發言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
6.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어떠한 研究가 그 依賴者에게 利益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報酬를 위한 研究도 擔當하지 않는다.
7.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祖國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限으로 奉仕精神을 發揮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應分의 物質的 協助를 아껴서는 안된다.